군산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추진

관내 유휴부지 활용 산단 내 기업들 폐수처리비 부담 덜어주기로

군산시가 관내 유휴뷰지를 활용해 주요 공약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인 공공 하수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로 연간 전기사용량 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 폐수처리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환경부 및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국가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이다.

군산시는 환경부 '2019년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및 산자부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14억 3천만원[하수처리장 6억 6천만원(국비50%), 폐수처리장 7억 7천만원(국비 45%)]을 투입해 하·폐수처리장 유휴부지(주차장, 건물옥상)를 활용해 하수처리장에 230KW급, 폐수처리장에 290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통해, 하수처리장은 연간 30만2천KW, 폐수처리장은 연간 38만1천KW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약 9,0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예산절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폐수처리비는 전력비, 인력비, 약품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전력비 절약으로 폐수처리비를 낮춤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 폐수처리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 및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산본병원, 혈액종양내과 개설

이달부터 진료 개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산본병원이 혈액종양내과를 개설하고, 8월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혈액종양내과는 인체의 각 장기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에 대한 항암화학치료, 표적치료, 면역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분야로써 환자 개개인의 암 종류에 따른 항암화학요법과 표적치료제 및 면역치료제 등을 사용하는 맞춤치료 외에도 암 예방을 위해 유전암 환자에 대한 선별검사, 유전검사를 통한 확진, 유전상담 등으로 향후 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전 예방하는 관리도 시행한다.

원광대 산본병원 혈액종양내과를 책임지는 이석영 교수는 고려대 의과대학, 동경대 박사과정을 거쳐 고려대 구로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재직했으며, 앞으로 고형암, 항암치료, 유전상담, 양성혈액질환, 혈액암 등에 대한 진료를 펼친다.

하대호 산본병원장은 "혈액종양내과 개설로 산본병원 내과는 총 6개 분과 체제를 갖추게 돼 진료범위를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병원 발전을 꾸준히 도모해 국민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윤동욱 군산 부시장, 국가예산확보 강행군

기재부 방문 실무 사업 부서 상대로 건의활동 펼쳐

군산시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정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등 찾아다니며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강임준 시장이 기재부 예산실 핵심 간부 면담을 통해 주요사업 반영을 건의한데 이어 윤동욱 부시장이 재차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실무 사업 부서를 상대로 건의활동을 펼치는 등 막바지 정부예산 심의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를 방문한 윤 부시장은 먼저 농림해양예산과를 방문해 ▲군산 어청도항로 노후여객선 대체건조 사업과 ▲군산항 신규지정 항로 준설사업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사업 추진의 시급성에 대해 실무진 설득작업에 나섰다.

군산시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정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등 찾아다니며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박창환 고용환경예산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미세먼지 대응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도심클린로드시스템 설치를 위한 예산반영 요청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처리 관련 5개 신규 사업에 대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국비 지원 시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적극 설명하는 등 위기지역 배려차원에서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또한 장윤정 행정예산과장을 만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군산시의 산업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과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윤 부시장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한 만큼 우리시 전 부서가 기재부 심의 대응에 매진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단계까지 반영된 사업과 부족한 예산이 최대한 증액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28일까지 의견제출 기간 운영

익산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9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418호이다. 단,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6월 1일 이후 사용승인된 주택은 제외된다.

열람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하여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견제출 개별통지 과정을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안전그림 네잎클로버 사업 추진

군산소방서, 장애인의 옆집세대 화재 안전도우미로 임명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화재 발생 시 장애인들의 안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세대의 옆집세대를 화재 안전도우미로 임명하고, 함께하는 대피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드림 네잎클로버는 화재 취약계층인 장애인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가장 가까운 이웃의 도움으로 대피하고 이웃의 화재 초기 진압을 통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산소방서 특수시책이다.

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장애인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한잎' 장애인 세대 옆집을 화재 안전도우미로 임명하고 소화기를 지급하는 '두잎' 화재 안전도우미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자율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세잎' 장애인과 화재 안전도우미가 함께 장애인 도움 대피교육과 초기대응역량 강화교육을 받는 '네잎'이다.

소방서는 6월과 7월 읍·면 지역 장애인 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옆집세대 중 132세대를 선정하여 화재안전도우미로 임명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추가로 170여 세대를 선정하고 초기대응역량 강화교육까지 마칠 예정이다.

구창덕 서장은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피난교육과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안전행복지수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 약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소방서가 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상반기 민원 서비스 만족도 '우수'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상반기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총점 87.2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8일 시 열린민원과는 상반기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지난해 비해 0.7점 상승한 87.2점으로 '우수'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군산시의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당 지자체 민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편리성, 쾌적성, 친절성 구비서류적절성, 방문횟수적절성, 신속성, 전문성, 공정성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업무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군산시 지역 민원신청자로 유효표본수는 1,092명 응답률은 34.6%(조사대상자 : 4,339명, 접촉표본수 : 3,155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2.6%p로 지난달 15일 모노리서치에서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서별로는 항만해양과가 95.4점, 도시계획과 91.4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았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여름 특화프로그램 운영 호응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여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센터에 따르면 여름 특화프로그램으로 두뇌 깨움 노인건강, 백세총명기공체조, 건강업 교실, 뱃살쏙 교실, 싱싱S라인건강체조, 시원한 여름나기 힐링시네마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체력검사, 영양상담, 개인별 근력강화 유지 향상을 위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가족명상 프로그램 캠프 참여자 모집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문섭)는 실직 및 구직자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위기가정 회복 프로그램 '가족명상 힐링허그 사감(사랑과 감사) 포옹 프로그램'에 참여할 20가정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충주시 '깊은 산속 옹달샘' 아침편지 명상센터에서 진행되며, 부부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명상을 통해 인내와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군산시 실직 및 구직자 가정 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군산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가족캠프 뿐만 아니라 마음관리 역량 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미술 심리치유 등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